투어 번호
LKYBCQGVB4

미지의 실론 (7일)

7일 · 6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7일 프라이빗 투어는 스리랑카의 고대 왕국과 산악 지역을 거쳐 콜롬보의 해안에서 끝납니다. 네고보에서 판두와스누와라, 야파후와, 폴론나루와, 시기리야, 담불라를 거쳐 캔디와 마히양가나 주변 산으로 들어간 후, 돌아오는 길에 키툴갈라에 들러 하이킹과 래프팅을 즐깁니다.

여행객들은 기원전 5세기 판두와스누와라 왕국부터 캔디 시대의 사원, 유네스코 등재 치아 사원에 이르기까지 스리랑카 역사의 광범위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일정에는 야파후와의 바위 요새와 마히양가나 사원 같은 덜 알려진 장소뿐만 아니라 시기리야 바위 요새, 담불라 석굴 사원,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같은 잘 알려진 랜드마크도 포함됩니다. 키툴갈라에서의 하루는 벨릴레나 동굴 고고학 보호구역으로의 하이킹과 켈라니 강 래프팅으로 야외 활동을 더합니다.

투어는 전 일정에 프라이빗 차량과 기사 겸 가이드와 함께 진행되므로, 일정은 단체가 아닌 여행객 중심으로 짜여집니다. 호텔 숙박, 식사, 입장료는 별도로 준비되어 각 정류장에서의 경험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Lakpura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네곰보로 이동하여 체크인 후 휴식을 취합니다.

Day 2 네곰보 → 판두와스누와라 → 야파후와 → 시기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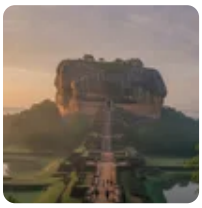
이날은 스리랑카의 초기 두 왕도를 둘러본 뒤 시기리야로 이동하며, 수세기에 걸친 섬의 역사를 담은 유적들을 만나봅니다.



판두와스누와라

스리랑카 최초의 왕국 중 하나로, 기원전 5세기에 왕도로 사용되었다가 12세기에 다시 사용되어 서로 다른 시대의 유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L Manju · CC BY-SA 4.0



야파후와

시기리야와 같은 양식으로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이지만, 넓은 계단과 석조 조각, 섬세한 기둥 조각 등 건축 양식은 다릅니다. 방문객들은 요새 정상까지 올라가 불교 탑의 유적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칸디 시대의 주목할 만한 불상과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람에는 약 두 시간이 소요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폴론나루와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왕도로,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적지에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이 도시의 황금기를 이끈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3 시기리야 → 담불라 → 캔디

이날은 시기리야 바위 요새 등반과 담불라 석굴 사원 방문을 캔디로 가는 길에 함께 진행합니다.



시기리야

기원후 5세기 카샤파 왕을 위해 세워진 바위 요새로, 사자의 발 모양으로 장식된 입구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자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반길에는 아직도 색이 선명한 벽화,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궁전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Wrobell1 · CC BY-SA 3.0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석굴 사원 단지로, 부처의 생애를 그린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있습니다. 이 석굴들은 신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 대신사원 등으로 불립니다.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4 캔디 → 마히양가나야 → 캔디

이날은 캔디에서 출발하여 원주민 공동체를 만나고 섬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한 곳을 방문한 뒤 다시 돌아옵니다.

원주민 공동체

전통적인 삶을 이어가는 공동체를 방문하여 그들의 소박한 가옥을 둘러보고, 토끼, 사슴, 멧돼지 등의 동물을 사냥하며 일부 농사로 보충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배웁니다.

마히양가나 사원

부처의 머리카락 몇 올을 봉안한 작은 불교 탑에서 시작된 이곳은 섬 최초의 불교 탑입니다. 기원전 543년 아라한 사라부가 부처의 왼쪽 쇄골을 머리카락과 함께 봉안하고 탑을 18피트로 확장하였으며, 이후 여러 왕들이 계속 확장하여 현재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약 40년 전에 보수되었으며, 지금도 평화로운 역사적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Day 5 캔디

캔디 주변의 사원과 정원을 둘러보고 전통 춤 공연으로 마무리하는 하루입니다.



엠베케 사원

목공 기술로 유명한 사원으로, 기둥과 벽, 지붕을 장식한 정교한 조각 패널이 특징입니다.

Cherubino · CC BY-SA 3.0



가달라데니야 사원

14세기 초 남인도 출신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사원으로, 거대한 황금 불상과 세월이 느껴지지만 정교한 조각과 그림들, 그리고 네 개의 위성 탑을 거느린 중앙 불탑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석굴 사원

커다란 바위를 파서 만든 석굴 사원으로, 내부 벽면 전체가 불교를 표현한 화려한 칸디 시대의 그림들로 덮여 있습니다.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방문객들은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장식된 통로와 벽화가 그려진 홀을 지나며,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에는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크고 희귀한 나무들이 늘어선 길도 있습니다. 대포알나무, 현수교, 미로 정원 등이 주요 볼거리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캔디 문화 공연

전통 스리랑카 예술 공연이 한 시간 동안 펼쳐지며, 불춤, 검무, 그리고 북소리에 맞춘 칸디 전통 춤을 선보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6 캔디 → 키툴가라 → 콜롬보

일찍 출발하여 키툴가라에서 야외 활동을 즐긴 후 콜롬보로 이동하는 하루입니다.

벨릴레나 동굴 고고학 보호구역

하이킹 투어를 통해 키툴가라 근처에 있는 이 고고학 동굴 보호구역을 방문합니다.



켈라니 강

키툴가라의 켈라니 강에서 즐기는 급류 래프팅입니다.

Pol van den Scheetek... · CC BY 3.0

Day 7 콜롬보 → 공항

마지막 날 아침에는 콜롬보의 역사적 명소와 쇼핑 지역을 둘러본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콜롬보 명소

올드 라이트하우스, 구 국회의사당, 갈르 페이스 호텔, 갈르 페이스 그린, 국립박물관 등의 유적지를 방문하며, 독립광장과 레이스 코스 지역의 상점가도 둘러봅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
